

대중교통으로 떠나는 도심속 오아시스, 한강야외수영장 물놀이장 6월 23일 동시개장

시, 6월 23일 폭섬·여의도·광나루·잠원 한강 야외수영장과 난지.양화 물놀이장 동시 개장!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가까운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6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59일간 폭섬, 광나루, 여의도, 잠원 한강 야외수영장과 양화, 난지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망원 수영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성산대교 복단 성능개선공사"로 인해 운영하지 않는다. 잠실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 진행중에 있어 올해는 개장하지 않으며 내년엔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접근성이 좋은 한강 야외수영장은 넓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으로 한강을 조망하며 수영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이기구, 샤워시설, 카페테리아,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름 휴가지로써 시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021년은 운영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3년 만에 개장했으며, 총 215,534명의 시민들이 한강 수영장을 찾아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갔다.

한강 수영장은 연령대별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성인풀, 청소년풀, 어린이풀, 유아풀로 나누어 구성되어있으며, 장소별 특성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다.

특성 수영장에서 흐르는 물에 튜브를 타고 도는 유수풀과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4m 높이의 아쿠아링,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선텐장이 설치되어 있다. 지하철 7호선 독성유원지역과 인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다.

여의도 수영장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아쿠아링 뿐만 아니라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통돌이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준비하여 대형 워터파크 못지않은 물놀

이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맞이한다. 광나루 수영장은 아기자기한 공간과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이 동반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도 오붓하게 즐기기에 좋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형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어 있어 흥미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잠원 수영장은 넓은 공간에 성인풀(수심 1.5M), 청소년풀(1.2M), 유아풀(0.5M)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통돌이 등 놀이기구를 비치하여 운영한다.

난지 물놀이장은 한강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인피니티풀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한강을 배경으로 한 분수가 설치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 많이 즐겨 찾는 여가시설이다.

양화물놀이장은 어린이가 이용하기 좋은 수심인 0.8M의 풀이 설치되어 있고, 인접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 등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영장 이용자는 깨끗한 수질 관리와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수영모를 쓰고 수영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천원, 청소년 4천원, 성인 5천원이고, 물놀이장은 어린이 1천원, 청소년 2천원, 성인 3천원이며, 만6세 미만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동이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를 제출하는 경우 입장료의 50%를 할인받는다.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학습 참여자(50인 이하, 방학기간 제외)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는 입장료를 100% 할인하고, 한강을 보전. 이용하는 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으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수영장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수조 방수처리, 미끄럼 방지 포장, 선텐장 가림막 설치, 카페테리아 리모델링, 휴게공간을 확충했다. 또한 노후된 여과기 8대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다.

운영기간 중에는 한강사업본부 직원으

로 구성된 점검반(2인/1조)을 편성하여 매일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대장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점검한다. 아울러, 매점의 위생환경과 시설물 점검을 통해 이용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물레카메라 방지를 위한 렌즈 탐지기를 수영장 및 물놀이장 6개소에 비치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영장 및 물놀이장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탑, 구명환, 안전요원 총 54명을 배치하고 현장 의무실에는 간호 조무사가 상주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산소 호흡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등 안전교육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감소했으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시설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접촉자, 고위험군은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므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기상예보를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를 권장한다.

주요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속 가장 가까운 피서지인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에서 무더위를 피해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보건복지부, 198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개방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한국보건정보통신원(원장 임근찬)은 6월 20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암 환자 데이터를 결합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 등의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하여 ▲통계청의 사망 정보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검진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을 결합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 환자 198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암 진단 이전부터 사망에 이르는 암 환자 전 주기 데이터를 포함한다.

국립암센터는 K-CURE 포털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신청받고 연구목적 및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한국보건정보통신원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폐쇄분석 공간인 암심활용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고 결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안전한 분석환경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암 환자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 환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정보를 포괄하여 연구 가치가 높다"라고 말하며, "예후 진단과 합병증 예측 등 심도 있는 암 정복 연구와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어 국민건강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강병삼 제주시장, 축산 업무 직원 워크숍 참석

강병삼 제주시장은 6월 16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축산 관련 업무 직원 워크숍에 참여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했다.

이날 워크숍은 축산과와 읍·면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축산업무와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는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특정·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 축산농가의 무 소득·방역시설 점검요령 안내, 주요 반복민원 응대 매뉴얼 공유, 초지 기본내용과 제한·전용가능 행위 등에 대한 실무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은제로웨이스트(Zero-Waste) 실천을 위해 각자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여 음료를 마셨고, 현수막과 종이 토론타자료가 없이 진행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날씨가 더워지면 축산관련 민원이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의 축산업무 역량이 향상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건/기자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영길입암면지사협 민간위원장 외 1명 경북도지사상 수상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2023년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영길 민간위원장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조성대 주무관이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공로로 경북도지사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수상한 강영길 민간위원장과 조성대 주무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지

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등 민·관 연계 협력의 중추 역할을 했기에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번 경북도지사상 포상은 경북도와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2023년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로 23개 시·군 협의체위원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시 선비세상에서 개

최됐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로 사회복지 기관, 법인, 시설, 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내 23개 시군과 330개 읍면동에 설치, 9천여명의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양군에는 250여명의 대표협, 실무협,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대규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개장 서울 목동서 23일까지...고정 고객 확보·소득증대 기대

전라남도는 고정 수요층 확보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20일부터 서울 목동아파트 2단지과 14단지에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

이번 직거래장터 참여는 전남 시군에서 생산한 제철 농특산물을 추천받아 여수 돌산갯김치, 순천 된장·고추장, 광양 매실, 곡성 멜론과 참옥수수, 고흥 마늘, 보성 감자, 무안 양파 등을 선정했다.

특히, 전남 정청바다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깨끗한 영광 굴비, 완도 전복, 곱창김, 미역, 다시마, 건어물, 신안 소금과 새우젓 등 수산물도 함께 준비해 직거래장터 참여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직거래 장터에선 전남 농수특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참여

유도를 위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자에게 5천 원 할인권을 제공했다. 또 서울시민이 직거래장터 이후에도 전남 농특산물을 꾸준히 구매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홍보도 병행하고 나선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직거래장터는 도민에게는 판로 확대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서울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10만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목동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전남에서 생산하고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한'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중배/기자



충남도의회, 지반침하 사고 예방·대응체계 마련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부실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책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개선·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통



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

사 결과를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도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폭 26m, 깊이 7.8m에 달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최정근/기자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야간·중회운항을 통해 섬주민 교통권 보장 근거 마련으로 주민 편의 증진 기여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이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과 섬주민들의 해상교통권을 보장을 위해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 야간·중회 운항 여객선사에 대한 지자체 예산 범위 내 운영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기존 수익성이 낮은 일반항로에 대해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야간·중회 운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필요성이 관철됨에 따라 조례에 섬주민 교통권 보장 근거를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향후 목포시 3개 도서(달리도, 울도, 외달도)의 지역 주민들



의 해상교통 이용이 크게 개선되어 관련 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여객선사 또한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 일부를 지원받아 야간·중회 운항을 통해 경영권 약화에 따른 운영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로

해상 운송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완의원은 "여객선사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섬주민들의 교통권 약화에 대응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이다"고 말하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력하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형완(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점에 대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종배/기자

청송군의의회, 제266회 정례회 개최

청송군의의회는 6월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그리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19일 안덕면을 시작으로, 20일 현서면, 21일 파천면·진보면, 22일 부남



면·현동면, 23일 청송읍·주왕산면을 차례로 방문해 각 지역의 주요사업 현황을 살피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태준 의장은 "청송군의의회는 앞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최병준 경북도의원 발의,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이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경북도의원 60명이 한 뜻으로 공동 발의하여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국기(國旗)로서 태권도의 발상지인 경북의 위상을 제고하고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 경상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태권도를 연계한 지역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 태권도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진흥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태권도 문화·관광·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2018년에는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법제화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스포츠로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28년 LA 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2억여 명이 달하는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기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유품단자는 975만여 명, 도내는 35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북은 이러한 태권도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화랑도의 고장인 경북 경주는 태권도의 역사·문화적 분향으로 태권도 정신의 근원이 화랑도에서 기인했음을 다수의 문헌(최치원의 '난랑비서문', 김수식의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편' 등)이 입증하고 있다.

또한 경주는 태권도 관련 유물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로 분황사모전탑, 석굴암 등지에 태권도 품새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유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태권도공원 최종 유치 실패의 아픔이 있었던 경북은 태권도 발상지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의 위상을 강화하고, 태권도 진흥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태권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도내 태권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2억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경북을 방문 할 수 있는 상징적인 태권도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이 보다 다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준 의원은 "태권도의 원류는 경북 경주이자 경상북도"라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선대로부터 내려온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의 미래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지사에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 확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지난 14일(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난 6년간 미뤄지고 있는 지역현안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갈매 IC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다"며 "구리시는 GH로부터 교통분담금 260억 원을 받지만 6년이 지나도록 사업 발주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 고발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기관에서 사업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이행 기한을 정해주거나 그 이후에도 불이행될 경우 환수조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김 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구리시가 예산 문제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듯 하다.

불이행 된다면 환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나 충분히 협의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2020년 3월에 경기도-남양주시-GH가 함께 '개발이익도 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 협약 내용 지금도 지켜질 의지가 있

다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며 다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담은 질문을 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 때의 일 이라고 하지만 그 협약내용도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의지를 다시금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4일 도정질문에서 "앞으로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최만식/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 회 부:대선 (113)	문 화 부:대선 (115)
광 고 국:1899.9659	경 계 부:대선 (114)	부 동 산 부:대선 (117)
	스 포 츠 부:대선 (115)	오 리 닌 부:대선 (118)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분묘 개장 공고

◇분묘 소재지: 전남 순천시 낙안면 평사리 산43번지 고 박동열의 묘 외 1기

◇공고 일: 2023. 06. 16.

◇공고매체: 종합일간지 문화매일

~공고 내용~

본 토지는 개발계획에 따라 분묘 개장이 불가피하여 장묘법 제27조에 의거하여 2023년 4월 10일 분묘 앞 공고표지판을 설치 알림 바 있으며, 또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이를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06월 16일
공고자: 김옥수
연락처: 010-6553-7700

한옥독채에서 전통 다과맛보며 더위 날려요! 남산골한옥마을 '2023 남산골바캉스' 운영

남산골한옥마을, 이색 피서 프로그램 '2023 남산골 바캉스' 운영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은 남산골한옥마을의 대표 여름프로그램인 '이색 피서' 프로그램 '2023 남산골 바캉스'를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 운영한다.

'남산골 바캉스'는 여름철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냈던 선조들의 방식을 따라 남산골한옥마을의 전통 가옥에서 한국의 맛과 멋, 침을 느끼며 더위를 날려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작은 더위'라 불리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인 '소서'에 시작하여 특별함을 더한다.

'남산골 바캉스'는 올해도 여름과 어울리는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1인 다과상을 선보인다.

정금미 전통음식 연구가(정금미 전통음식연구원 원장)가 정성스럽게 만든 다과를 아름다운 담음새로 1인상에 제공한다. 예년보다 다양한 다과로 미각적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남산골 바캉스'에서 제공되는 1인 소반은 다섯 가지 다과를 한상차림으로 구성했다. 곁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개성 지방의 전통 음식인 '개성약과', 곳곳 속에 대추와 호두를 넣고 말아 퐁피를 더한 '곶감 대추 호두말이', 정성을 가득 담아 검은깨로 만든 '흑임자 다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수상을 실탕과 꿀에 조리낸 '인삼편 정과'와 상큼하고 싱그러운 '금굴정과'가 준비될 예정이다.

이번 '남산골 바캉스'의 1인 다과상을 담당한 전통음식 및 혼례음식 연구가 정금미 원장은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기능보유자이며 조선 왕릉 제수품 증박회 복원제작에 참여 했다.

한국국제요리대회 '시절 음식 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떡한과페스티벌에서 대상을, 한국 음식관광박람회 '궁중음식의레부'의 서울시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낯설면서도 친숙한 공간인 도심 속 한옥은 고아한 '한옥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서늘한 마룻바닥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남산과 청학지를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더위가 멀리 달아난다. 자연과 도시,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남산골 바캉스'는 이색적인 여름나기를 선보인다.

'남산골 바캉스' 참여시민들은 평소 출입이 어려웠던 전통가옥 '윤씨 가옥 사랑채'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침'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고누놀이, 윷놀이, 공기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비치하여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국의 맛·멋·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2023 남산골 바캉스'는 7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 진행된다.

체험비용은 1인당 16,000원이며 36

개월 이하는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만큼 회차당 최대 4인 구성인 1팀만 예약할 수 있다.

다만, 8월 11일은 체험을 운영하지 않으며, 12일과 13일은 악자와의 동행을 위한 특별회차로 일반 체험객은 예매 불가하다.

예매는 6월 27일 오후 2시부터 남산골한옥마을 네이버 예약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단, 운영 상황에 따라 예약 오픈 일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산골한옥마을 누리집 또는 남산골한옥마을 누리 소통방(SNS)을 참고하면 된다.

김홍진 서울특별시 문화재관리과장은 "'남산골 바캉스'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남산골한옥마을의 대표 여름행사다"며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전통 한옥에서 누리는 특별한 피서로 여름 더위를 모두 날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침수 피해 함께 막는다...영등포구, 민·관 합동 빗물받이 일제 청소 시행

빗물받이 청소의 날 연계...구청장, 직능단체 등 빗물받이 청소, 캠페인 진행

영등포구가 6월 16일, 18개동 전역에서 1천여 명이 민·관 합동으로 침수 취약 지역의 빗물받이 일제 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빗물받이 일제 청소는 매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빗물받이 청소의 날과 연계해 추진됐다.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민·관이 힘을 모아 ▲빗물받이 청소 ▲빗물받이 임의 덮개 수거 ▲안내 스티커 부착 ▲캠페인 활동 등을 실시했다.

현재 지역 내 모든 빗물받이 25,516개소에 대한 1차 준설은 완료됐으나, 지속적인 도로상 쓰레기 유입, 담배꽂초 투기 등으로 빗물받이의 배수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작년에 침수 피해가 컸던 대림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침수 피해 예방과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빗물받이 일제 정비에 나섰다.

이날 대림2동은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통장연합회,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연합회 등이 빗물받이 대정소에 참여했다. 최 구청장은 빗물받이 내부를 점검하고 빗물받이에 있는 낙엽, 담배꽂초 등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탰다. 대림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대림역 12번 출구 → 대동초등학교 → 디지털로53길 방

향으로 청소를 진행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등 빗물받이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 활동도 펼쳤다.

아울러 빗물받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림로 → 대림공원사거리 → 디지털로 도로변은 빗물받이 기계 준설과 함께 살수차, 분진차를 투입해 노면 청소도 병행했다.

그 외 17개 동도 각 동의 침수 취약지역, 음식점 밀집 지역, 전통시장 주변 등 철저한 빗물받이 정비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에 앞장섰다.

구는 침수 피해를 빈틈없이 막기 위해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용역 ▲빗물받이 청소의 날 ▲빗물받이 책임관리제 ▲휴대용 이동식 물막이판 시범 운영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무료 설치 ▲침수 예·경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빗물받이는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우선 시 세 기능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장마철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풍수해 예방 대책을 시행, 예상하지 못한 집중 호우에도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임전필승! 송파구여성축구단'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여성 축구대회 우승...4연패 달성!

6월 10일, 11일 '전국여성축구대회' 경기서 14개 팀 제치고 최종 우승!

송파구 대표 구립체육단체인 송파구여성축구단이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에서 4연패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강' 여성축구단의 면모를 어김없이 발휘했다.

창단 25주년을 맞은 송파구여성축구단은 박영욱 단장과 김두선 감독, 그리고 선수 등 30여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현재까지 각종 대회에서 우승 56회, 준우승 19회를 거머쥐며, 자체기록을 끊임 없이 경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 강원도축구협회, 인제군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여성축구대회로 올해로 제20회째를 맞았다.

특히, 송파구여성축구단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제17회부터 연속 4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여성축구 부문의 정상자리를 굳건히 했다. 송파구여성축구단은 전국에서 모인 14

개 팀의 열띤 경기 속에서 안양시, 고양시를 차례로 꺾고 A조 1위로 본선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마포구와 승부차기 접전 끝에 4:2로 승리했으며,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광주시를 4:2로 꺾어 4승 무패의 성적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송파여성축구단의 눈부신 성과에는 구의 적극적인 지원도 특색이 한몫을 차지했다. 구는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 경기 참가 등을 지원해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구는 축구단이 매주 월·수·금 정기훈련을 실시하는 송파구여성축구장(울림로474)의 인조잔디를 전연교체하고 관람석을 재정비해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구는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활기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를 신설하고 여성축구 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4월 서울 특별시장기 우승에 이어 또다시 정상에 오른 송파구여성축구단에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생활체육의 도시 송파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홍수/기자

강남구, 메디컬투어센터 22일 개관...의료관광 토탈케어 센터로 대변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압구정동에 위치한 강남메디컬투어센터(GMTC)를 오는 22일 개관한다.

구는 2019년도에 13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으나 코로나 기간인 2021년도에는 2만 3천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의료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강남을 방문하는 해외 의료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더 높이기 위해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의료관광 종합커뮤니케이션 센터로 리뉴얼했다.

압구정로 161에 위치한 센터는 지상 1층 면적 315㎡(95평) 공간을 ▲안내데스크(홍보존) ▲힐링존(의료기기 체험존) ▲커뮤니티룸(교육·소모임) ▲공유오피스(비즈니스미팅) ▲주인휴게공간(갤러리·BOOK·로봇카페 등)으로 구성했다.

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 등 4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상주하며 1:1 맞춤형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픽업·랜딩 서비스와 통역, 숙박 및 쇼핑을 연계하는 강남만의 원스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관광객은 독립된 공간인 체험존에서 첨단 의료기기를 체험하고,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는다. 이 상담은 강남구 협력의료기관의 진료 상담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의료 관광

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부가세 환급(텍스 리펀드) 데스크와 무인보관함을 운영한다.

또한 센터 내 공유오피스 공간은 의료관광 협력기관 및 의료관광객들의 비즈니스 미팅장소나 화상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룸에서는 의료관광 관계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22일 14시 30분에 열리는 개관식에는 (사)강남구의료관광협회, 의료관광 관계자 등 70여명이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다.

또한 해외 유명 인물루머서가 참석해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영일 10시부터 18까지 운영하는 센터에는 의료관광객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힐링 공간으로서 방문할 수 있다. 무인 로봇카페, 건강과 여행 주제 관련 도서, 컬러리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새롭게 거듭난 강남메디컬투어센터에서 의료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의료관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강남 의료관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2026년 의료관광객 15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금천구, 박미보건지소 '건강이유식 교실' 운영

금천구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박미보건지소에서 '건강이유식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이유식교실'은 영유아 부모, 임산부, 이유식에 관심이 있는 금천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웰빙형 영유아의 식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이유식 및 유아 간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유아 식생활 문제점에 대한 개별 상담의 기회도 마련했다.

총 2회에 걸쳐 운영되는 건강이유식 교실은 금천구 박미보건지소(시흥3동소재) 영양교육실에서 유아 식생활 전문강사, 보건지소 영양사와 함께 진행한다.

7월 4일 1차 교육에서는 초기, 중기 이유식에 대한 이론 교육과 유아 간식 만들기를 진행하고, 7월 5일 2차 교육에서는 후기, 완료가 이유식에 대한 이론 교육과 유아 간식 만들기를 진행한다.

교육 시간은 1차, 2차 교육 모두 동일하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교육 시에는 유아를 동반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각 회당 12명씩 총 24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교육 홍보물의 QR코드를 촬영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박미보건지소 네이버 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영유아를 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관악구, '2023 G.I.G 페스티벌' 개최

오는 7월 1일과 2일, 국적과 연령 구분 떠난 글로벌 스트리트 댄스 축제 개최

관악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세계 댄서들이 함께하는 스트리트 댄스 축제 '2023 G.I.G 페스티벌'을 개최, 별빛내린천 일대를 장식한다.

관악문화재단 주관으로 개최되는 '2023 G.I.G 페스티벌'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스트리트 컬처를 주제로 김설진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았다. 축제는 ▲스트리트 댄스 배틀 ▲스트리트 문화체험(G.I.G Zone) ▲전시(G.I.G Exhibition)로 꾸며질 예정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틀은 '프리스타일 1on1 배틀', 청소년 댄서를 위한 '틴에이지 2on2 배틀', 'GIG 댄스 챌린지'로 구성된 경연 프로그램으로 힙합(Hip-hop), 팝핀(Popping), 락킹(Locking) 등 모든 장르의 스트리트 댄스를 만나볼 수 있다.

경연은 해외 스트리트 댄스계 유명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전문성을 더했으며, 별빛내린천 특별 무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스트리트 문화체험(G.I.G Zone)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스트리트 컬처'를 주제로 한 상설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EDM 체험 ▲파티존 ▲나만의 G.I.G 로고 만들기(그래피티 드로잉 체험) ▲숏폼(short form) 댄스 배우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스트리트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스트리트 푸드를 맛볼 수 있는 '머거리 코너'도 마련한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결제가 가능해 기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경제적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별빛내린천 대표 명소인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에서는 한국을 빛낸 세계적인 댄서들을 주제로 한 전시(G.I.G Exhibition)를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김설진 예술감독은 "이번 축제가 청소년과 청년 댄서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구는 오는 6월 29일과 30일 관악청년청에서 축제 사전 프로그램 '댄스 워크숍'을 개최하고 해외 유명 댄서에게 직접 춤을 배우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문화재단 축제기획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관악문화재단과 힘을 합쳐 모든 연령층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라며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즐겁게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기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타슈켄트주와 보건의료분야 교류 협력

6.13~17 경기도 보건의료대표단 우즈베키스탄 방문. 타슈켄트주정부와 보건의료 공동 사업 추진

경기도 보건의료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타슈켄트주와 공동 의료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와 도내 의료기관 7개소(▲고려대학교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지생병원 ▲시화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료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6월 14일 타슈켄트주정부를 공식 방문하고 조이르 미르자예프(Zoyir Mirzayev)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주지사를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타슈켄트주 주지사는 양 지역 간 보건 의료 분야 협력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며, 경기도 대표단도 우즈베키스탄 의료인 초청 연수와 상호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등 보건 의료 분야 주요 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이르 미르자예프 주지사는 2022년

9월 경기도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보건 의료 분야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6월 15일에는 타슈켄트시에서 경기도-타슈켄트주가 주최하는 공동 의료학술대회가 열렸다. 경기도 임원자 보건의료과장,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정성우 교수, 대장항문외과 홍광대 교수 등이 한국 측 발표자로 참석해 경기도의 보건 의료분야 협력 사업 성과 및 보건의료 체계와 우수 의료기술을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아브두가니예프 루크백 타슈켄트주 보건국장, 가니예프 타슈켄트주 공화국 암센터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새로운 보건 건강'을 주제로 우즈베키스탄의

료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학교안산병원, G셀병원이 타슈켄트주 보건국과 보건 의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의료기관은 타슈켄트 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의료인 간 교류를 진행했다. 대표단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경기도 의료를 알리기 위해 '2023 미디어결경기 비즈니스 포럼 B2B 행사', '우즈베키스탄 환자 상담회'를 개최해 현지 의료에이전트 시 및 의료인과 비즈니스 미팅 30여 건, 환자 상담 40건의 실적을 거뒀다. 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우즈베키스탄 주요 지방정부와 지역 간 협력에 관한 보다 진전된 대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분야 정책교류 확대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번 방문은 경기도 의료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타슈켄트주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두 지역 간 의료 교류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곤충 페스티벌에서 가족들 즐거운 시간



용인특례시가 17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 용인농마파크에서 '곤충아, 친구하자! 용인 곤충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곤충 페이스 페인팅을 한 시민들이 북적거렸다. 광장 잔디밭에서는 용인 곤충 마스코트가 시민들을 맞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곤충 전시체험 부스에서 시민들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누에 등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손에 올려보며 즐거워했다. 먹거리 장터에서는 식용 밀벌, 누룽지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행사장 여기저기에서는 애완곤충과 식용곤충 체험, 이색곤충 전시, 곤충 DIY(가방, 목걸이 등 만들기) 체험, 곤충 그림 그리기 대회, 나비 날리기 대회 등 프로그램이 열렸다. 시민들은 곤충 관련 퀴즈를 맞추는 곤충골든볼, 고른 사슴벌레를 나무판에서 상대 사슴벌레를 떨어뜨리는 곤충씨름대회, 눈 감고 곤충 맞추기, 고무 동력 나비 날리기 대회 등 경연대회도 즐겼다. 용인 곤충 페스티벌은 용인인의 차별화된 컨셉의 시민참여형 곤충 축제로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

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용인시농업기술센터와 용인곤충산업연구회가 함께 마련했다. 미취학 아동(유치부)과 초등 저학년생(초등부)이 참여한 곤충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한채현 장평초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곤충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 학생들에게 시상상을 수여하면서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과 친하게 지내곤 했다"며 "곤충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식용곤충도 등장하는 등 미래 산업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곤충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가 열려 뜻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와 부스를 일일이 방문해 설명을 들었다. 행사장 인근의 용인곤충테마파크에 둘러 전시된 곤충들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임관순(41, 신갈동)씨는 "아이들이 곤충을 좋아해 행사장을 찾았다"며 "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준비가 잘 된 것 같아 좋았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신나는 일(job) 생기는 날... 21일 광명시 취업박람회 개최

광명시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신나는 일(job) 생기는 날! 2023년 광명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광명시를 비롯해 금천구, 구로구 등 광명시 인근 지역에 소재한 40여 개 기업체가 참여해 1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중 30개 기업은 취업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며, 나머지 10개 기업은 이력서 접수 대행으로 직원을 채용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중장년층·경력단절여성·노인 등 모든 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채용관을 운영한다.

또 입사지원서 컨설팅과 이력서 사진 촬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컬러테라피, 탈모 진료상담, 네일아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무료로 진행된다. 관내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비즈니스 취업매너, 모의면접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업체에는 적합한 인재 채용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기업체와의 면접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당일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구직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등록 등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2023.6.21. (수) 오후 2시 ~ 5시
광명시민체육관
문의: 114 채용센터(30개 구청) | 02-2680-6273

7월 1일 서해선 대곡~소사 개통...고양, 출퇴근이 편해진다

8월 서해선 대곡~일산 연장, 내년 하반기 GTX-A 운정~서울역 개통예정



오는 7월 1일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되고 8월에는 대곡~일산 구간까지 연장돼 고양시에서 경기 서남부로 이동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GTX-A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될 예정이어서 출퇴근 교통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 8월 일산역까지 연장

이번에 개통되는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은 고양대곡~능곡-김포공항-원종-부천종합운동장-부천소사 총 6개 역이다. 2018년 개통한 서해선 부천 소사~안산 원시 노선의 연장구간이며 고양, 부천, 시흥, 안산 등 경기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잇는 복선전철이다.

경기서부권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없어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해선 연장으로 인해 대곡~김포공항 통행시간은 기존 4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되고 대곡~소사구간은 기존 67분에서 19분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서부권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공항은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교차해 서울 서남부, 강남권 이동이 쉬워진다.

8월에는 기존 경의중앙선 선로를 이용해 고양 대곡-곡산-백마-풍산-일산역까지 6.8km 구간 연장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당초 대곡역까지 연결되는 서해선을 일산역까지 연장하고 시민들이 환승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왔다. 사업비 86억원을 투자해 노선 연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했다. 향후 파주운정까지 연장하여 탄현역에서도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은 "서해선 대곡~소사구간 개통으로 고양시에서 김포공항, 경기 남부, 서울 강남권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8월 일산역까지 적기에 연장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TX-A 운정~서울역 구간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을 거쳐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연장 82.1km 노선이다. 지하 40m 대심도에 선로를 구축해 기존 지하철보다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다. GTX-A 전동차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180km에 달해 일반 지하철 전동차 시속 80~100km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르다. GTX-A 노선에는 총 11개역이 조성되고 열차 간격은 7~15분이다. 8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편성에 1,090명이 탑승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전동차 출고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수서~동탄 구간(29.7km)이 내년 상반기 먼저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42.6km)은 내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운정~서울역~수서~동탄 전구간은 2025년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며, 중간에 위치한 서울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2028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정~삼성 구간 공정률은 약 60%로 진행되고 있다.

고양시에는 총 3곳(킨텍스, 대곡, 창릉)에 GTX-A역이 조성된다. 킨텍스역과 대곡역은 내년 하반기에 개통된다. 창릉역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 조성되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과 입주시기에 맞춰 2027년 무렵 개통될 전망이다. GTX-A가 개통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30분대로 연결해 수도권 외곽의 교통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은평선~서부선 직결 협의, 식사·중산연장,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고양은평선은 고양시청~은평 새철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서부선 새철~서울대입구 노선과 연결될 예정이다. 경전철 노선이며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고양시에서 은평, 신촌, 여의도, 판악구 등

으로 접근이 용이해지고, 지하철 3호선(화정역), 6호선(새철역), GTX-A(창릉역)로 환승이 가능하다.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고양은평선~서부선 직결과 관련해 비용분담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직결에 따른 혼잡도 해소비용을 원인자인 창릉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통한 운영비 재원 마련에 대해 LH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고양은평선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원당지역 발전을 위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식사, 중산까지 연장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된 '대곡~식사' 구간을 대상으로 친환경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신분당선 일산연장, 9호선 급행 대곡연장, 3호선 급행, 경의중앙선 증차, 공항철도 추가역 신설, 교외선 전철화 등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출퇴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도로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선정' 평택시 입장 표명

평택시는 지난 15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시의 입장을 19일 밝혔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435만㎡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정부는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배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평택지제역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하여 SRT개통 이후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꾸준히 증가한 지역으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세권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평택시 주도의 공공개발

을 준비한 곳이다. 이날 정상선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선정 배경을 "시 주도 공공개발로 추진하던 중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확대 개발하겠다는 제안 요청에 따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정부 제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따라 해당지구 내 주민 피해 최소화화를 위해 토지주 및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보상 대책과 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과 더불어,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수립 및 공원·녹지공간 및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 자체 TF팀을 운영하여 정부 및 LH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가족 축제로 자리매김'...서구,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 성료

인천 서구는 지난 17일 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일원에서 K-water 아라뱃길지사(지사장 김경경)와 공동으로 개최한 수상 레저 스포츠축제 '2023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축제에는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서구는 인구 60만 돌파를 기념하고 '아라뱃길에서 즐기는 수상레저'를 주제로 수상체육은 물론이고 육상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이은 더위에 1, 2인승 카약과 패들보드 체험에 온라인 신청이 일찍부터 마감됐으며 현장 접수 열기도 뜨거웠다. 수상체육에는 약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아라뱃길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레저

스포츠를 즐겼다. 특히 나무로 만들어진 '인디언카누'의 인기가 높았고 아라뱃길 정서진 수역은 카약과 카누로 장관을 연출했다. '육상' 축제장에는 카약축제의 모습과 정서진의 여름을 주제로 한 어린이 사생대회가 열렸고 아라뱃길 등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한편에 마련된 지역상생, 공공기관 부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몰렸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수상스포츠를 즐기게 제2의 곳"이라며 "앞으로 더 주민들께서 수상스포츠를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인천 식품업체, 킨텍스 메가쇼서 제품 우수성 알려

6개 기업 인천식품관 참가, 13여억 원 상담·판매 성과

인천광역시시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최대 규모 식품박람회인 일산 킨텍스 메가쇼에 6개 식품 관련 업체가 참가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인천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 지역본부는 이번 '2023년 킨텍스 메가쇼'에서 인천식품관 6개 부스를 운영하고, 64건의 국내·외 바이어 상담과 13억 5천만 원의 실적(상담액 12억 7천만원, 현장 판매 3천 5백만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하반기(2회)에 개최된 이 행사에서 시는 인천식품관을 운영해 142건의 국내·외 바이어 상담과 9억 1천만 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킨텍스 메가쇼는 약 650개 사, 1,000개 부스가 운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다. 오프라인 식품 판매전 및 수출상담회 개최해 중소기업 매출 극복의 기회와 함께 국내·외 새로운 유통 판로를 개척·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인천식품관에는 총 15개 업체가 참가 신청했고, 이 중 6개 업체가 선정돼

이번 행사에 참가했는데, 참여업체는 인천의 우수 제조·가공업체로 농업회사법인(주)삼흥(홍삼제품), (주)디앤푸드(냉동과자류), 태양이엔에스(주)(빵류), 온코컴퍼니(주)(밀키트), 남미플랜트랩푸드(주)(비건 골소스), 농업회사법인수복(주)(흑두라지다).

이중 홍삼, 흑두라지 등 한국을 알리는 식품과 함께 소비 경향을 반영한 밀키트, 냉동식품류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외 바이어들과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인천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우수 제조·가공식품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홍보·판매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 박람회 참여 지원 등 해외 진출 기회를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인천 푸드(INCHEON FOOD)의 세계화로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안성시 양성면 새마을회,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 진행

양성면 새마을회는 16일 아침 7시에 양성면 필산리 한천 변에서 "좋은 이웃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새마을회의 지원을 받아 한천 꽃길에 이팝나무 72주를 심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날 양성면 새마을회 회원 약 50여 명은 물론 이걸필 양성면장, 김윤배 양성농협조합장, 김성곤 이장단협의회장 등 주요 기관사회단체장이 함께 한천 꽃길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힘을 보탰다.

새로 심은 나무에 참석한 사람의 이름표를 부착하여 꾸준히 애정을 갖고 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이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동안 부녀회원들은 양성면 소재지 일원의 가

로를 청소하며 깨끗한 양성 만들기에 앞장섰다.

김향자 부녀회장은 "더운 여름날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한천 꽃길을 우리 양성면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품 꽃길로 만들면 좋겠다"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걸필 양성면장은 "양성면에서 한천 꽃길을 가꾸기 시작한지 3년이 됐는데 이제야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오늘을 계기로 한천 꽃길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안양천 일대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

31개 동 주민자치위원 150여명 참여...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



안양시는 지난 17일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지방정원 조성을 준비 중인 안양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양 31개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150여명과 관계 공무원이 '깨끗한 안양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만안구 박석교부터 동안구 학운공원까지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안양천 지방정원(면적 39만7520m², 연장 28.8km)은 안양천을 공유하는 안양시와 광명시·군포시·의왕시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지난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받아 올해 하반기 지방정

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로부터 조성 계획이 승인되면 공사를 착수한다. 오는 2028년에는 서울권 지자체와 함께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으로 안양천은 수도권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안양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욱 잘 가꿔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태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경정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깨끗한 안양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시민과 함께 파주 2045 그린다...미래 방향 모색

파주시는 16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2045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교육 및 속의공론장을 개최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5년 유엔(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며, 파주시는 유엔(UN) 및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파주시민의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준비 중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전문적인 분석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해당 용역에는 이번 역량강화 교육 및 속의공론장을 통해 시민들과 공무

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표가 담길 예정이다.

파주시는 6월 16일과 29일, 1차·2차로 진행되는 교육 및 공론장에서 수립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파주시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목표를 도출해 낼 예정이다. 목표 수립 후에 발굴될 지표는 행정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께서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몸에 맞게 개정해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수정법 개정 촉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할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명진·백혜련·김승원 의원 등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 등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기조발제,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



획평가센터장·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의 발제,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김갑성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를 상생 자금으로 확보해 비수도권을 지원해야 한다"며 "분권화로 자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를 발표한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규제 정책 방향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관리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 억제, 과밀억제책이 아닌, 국가성장정책으로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과밀억제권역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홍사흠 국토계획평

가센터장은 "동일한 권역 내에서도 지역 특성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차등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권역체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이동욱 부천대학교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 이해인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사무관,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최만식/기자

광주시 퇴촌면, 23만 명이 만끽한 '제21회 퇴촌 토마토축제' 성료

광주시 퇴촌면 공설운동장 일대에서 개최된 '제21회 퇴촌 토마토 축제'가 지난 18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6월 16일부터 18일 3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은 23만명, 판매된 토마토는 1만 5000 박스로 약 2억 55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4년만에 개최된 축제로 퇴촌 토마토의 우수성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21회 퇴촌 토마토축제에는 체험 부스 86개가 운영됐으며, 토마토 폴딩 및 토마토 풍뎉기, 라디오 공개방송, 연예인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내외에서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광주시청 각 부서 및 농협,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수자원공사,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를 운영했다.

석봉국 축제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축제를 4년만에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퇴촌 토마토 축제가 지역

농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광주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강호/기자

광명시 청소년과 청년들, 탄소중립도시 선언 위해 뭉쳤다

모든 시민의 탄소중립도시 선포를 위해 '청소년·청년 탄소중립 정책 수다회' 개최



오는 7월 6일 오후에 개최하는 '2050 광명시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앞두고 광명시 청소년과 청년들이 광명시 탄소중립 도시 선언에 힘을 보탰다.

광명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청년 탄소중립 정책 수다회'를 개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모든 시민이 힘을 모을 때 이를 수 있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탄소중립 정책 제안에 직접 참여해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바꿔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다회에서 참가자들은 광명시 탄소중립도시 선언문의 핵심어를 공유하고, 조를 나눠 ▲에너지전환 ▲1.5°C 기후의 병 운동 ▲기후위기 대응 ▲RE100 ▲탄소흡수원 ▲친환경 교통수단 등을 주제로 사례를 토의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한 참가자는 "광명시가 탄소중립 1번지 도시답게 많은 정책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RE100과 같은 어려운 용어도 친구들과 공유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용민/기자

제2기 이천시 청년활동가 양성과정 청년 모집

이천시청정채발전소는 6월 25일까지 '제2기 이천시 청년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활동가 양성 교육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진행하여 지역문제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청년활동가'로 양성하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며 다양한 분야에 역량을 갖춘 청년 리더로 양성하고자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오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이천시농촌마을자원센터(설봉공원 내)에서 진행한다.

양성과정은 역량강화교육, 토론, 네트워킹, 벤치마킹 등 청년정책의 흐름과 청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총 4강의 기본 소양 강좌들로 구성됐고, 양성과정의 75% 이상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수료증 교부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청년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발소는 이천시 청년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로 구성된 청년협의체로, 지난 2020년 2월 구성이후 청년을 위한 도시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청년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실행하는 '제1회 이천시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여 이천의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용/기자

제2기 이천시 청년활동가 양성과정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청년을 찾습니다!

교육안내

- 교육명: 제2기 이천시 청년활동가 양성과정
- 교육장: 1층 이천시청정채발전소 1층 1호실
- 교육기간: 2023. 7. 5(목) ~ 7. 12(목)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인원: 100명(10:30 ~ 13:30)
- 교육대상: 19~34세 청년(2023년 6월 30일 기준)
- 교육비: 무료(교통비, 식음료, 숙박비 등 별도)
- 교육장소: 이천시청정채발전소 1층 1호실
- 신청기간: 2023. 6. 25(화) ~ 7. 1(일)
- 신청방법: 이천시청정채발전소 홈페이지

신청안내

- 신청 대상: 19~34세 청년(2023년 6월 30일 기준)
- 신청 방법: 이천시청정채발전소 홈페이지
- 신청 기간: 2023. 6. 25(화) ~ 7. 1(일)
- 신청 장소: 이천시청정채발전소 1층 1호실
- 신청 문의: 031-985-9911

이천시청정채발전소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캠페인 '해변라디오 엑스포 2030' 개최

6.20. 20시 30분 ~ 23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

부산시는 내일(20일) 오후 8시 30분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간으로 응원하는 '해변라디오 엑스포 2030'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일(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제 171차 총회에서 진행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역사적 과정인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시민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장소인 광안리해수욕장은 지난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의 대미를 장식하며 실사단의 찬사를 받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쇼가 열린 상징적인 장소다.

시는 이때 부산의 뜨거운 유치 열망을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줄 계획이며, 또한 캠페인 개최 시각도 20시 30분으로 정해 '2030'의 의미를 강조한다.

캠페인은 보이는 라디오 형태를 따른 '해변라디오 행사'와 대형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관람하며 응원하는 '응원행사' 총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해변라디오 행사는 20시 30분부터 22시30분까지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라디오 진행자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의미와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대해 알려주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한 시민들의 사연을 소개한다.

또한,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부산 인디밴드의 거리공연도 진행되며, 그간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의미 있는 홍보영상들도 함께 상영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기 직전 세계박람회와 관련한 퀴즈 이벤트 등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이벤트도 마련해 응원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

다. 2부 응원행사는 22시부터 23시까지 진행된다. 민락회센터 앞 백사장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을 통해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응원 시민들은 배부되는 야광 팔찌를 활용해 '응원의 빛을 파리까지' 보낼 수 있다. 응원행사장에는 이번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은 이날 오후 10시 35분(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3시 35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나윤진 부산시 대변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분수령이 될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대한 후보국들의 준비 열기가 매우 뜨겁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의미와 취지를 시민



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어메이징 부산!(Amazing, Busan!)'이라는 실사단의 찬사를 받은 부산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다시 한번 응원의 빛으로 모아 파리에 보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과 함께 시민단체에서도 오는 6월 20일 오후 9시 송상현광장 야외광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응원전'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범여성추진협의회,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포럼, 2030부산월드엑스포 시민참여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하며, 누구나 참여해 동아대학교 응원단의 유치기원 공연과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실황을 관람할 수 있다.

송중진기자

대구향토역사관과 함께 '대구 역사 찾아 달성토성 한바퀴'

(재)대구문화예술포럼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향토역사관은 6월 30일 2시에 달성공원에서 '대구 역사 찾아 달성토성 한바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대구향토역사관 제2회 '달구벌 역사문화 알기' 행사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달성토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획됐다.

달성토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성곽으로, 고대부터 대구의 행정적·군사적 중심지였고 현재 사적(대구 달성)으로 지정돼 있다. 성지(城址) 일대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달성공원이 있으며, 공원은 경성감영의 정문을 옮겨 세운 관풍루(觀風樓, 대구시 문화재자료), 대구향토역사관, 동물원 및 오솔길 등이 조성돼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 이번 누구나 별도의 참가비 없이 참가할 수 있다. 6월 26일까지 전화 접수로 15명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자는 6월 30일 오후 1시 50분까지 달성공원 내 대구향토역사관 1층으로 가면 된다. 프로그램 1부는 상설전시실 관람 및 해설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담당 학예연구사와 함께 달성토성을 걸으며 달성과 대구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형석 대구문화예술포럼 박물관운영본부장은 "달성공원이 동물원으로 알려졌지만, 고대에 쌓은 성(城)이 있는 대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에 그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대구향토역사관을 비롯한 대구근대역사관·대구방짜유기박물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대구 지역사 이해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남구, 교훈과 감동의 가족 연극이 온다. 대덕문화전당, 가족연극'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개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여름 방학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연극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를 오는 6월 24일 오후 3시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에서 개최한다.

살기 위해 이주한 일본인들의 무덤이었던 곳이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 마을로 형성된 실화를 바탕으로 역사의 아픔과 상처를 고향을 떠난 '할아버지'와 '일본 귀신'이라는 캐릭터로 풀어낸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는 온 가족에게 따뜻한 감동과 교훈을 전하고자 한다.

부산 아미동 배경의 동명 그림책(이영아 작)을 원작으로 창작단체 '올리브와 찐공'이 제작한 본 연극은 지역민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2023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개최되어 의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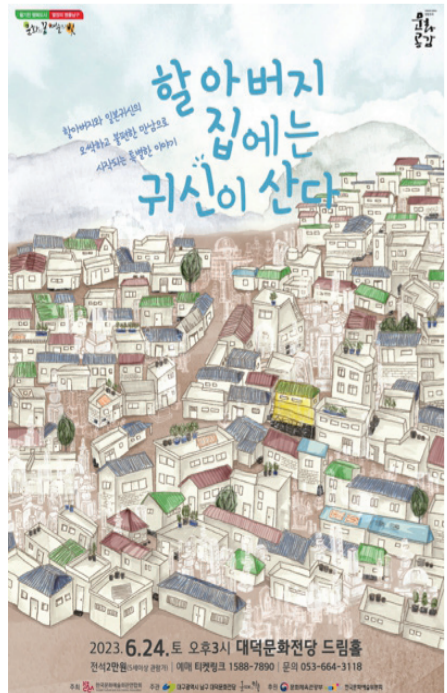
특히 프로젝트 맵핑 기술을 더해 입체감 있는 무대연출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해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는 등 일반적인 아동극의 한계를 뛰어넘는 웰메이드 연극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다.

탄탄한 원작의 힘에 배우의 열연, 진화한 무대 기술력을 더해 교훈과 감동, 재미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가족 연극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는 올여름, 여름방학을 앞둔 어린이와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선보이는 가족 연극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가 우리 역사 속 상처와 치유과정을 통해 온 가족에 인지 못할 감동과 교훈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6월 24일 오후 3시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에서 열린 가족 연극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는 전석 2만원으로 남구 구민 50% 할인, 실버 할인, 문화누리카드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으며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김동현기자



울진해경, 조난신호 확인하여 침수선박 구조

침수선박 9.77톤급 통발어선 및 승선원 4명 전원 무사히 구조

울진해양경찰서는 17일 새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남동 45km 해상에서 발생한 침수선박 9.77톤급 통발어선 1척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00:55경 울진해경서 상황실에서는 근무중 통신기 조난신호(VHF-DSC)를 접수했고, MMSI(해상이동통신 식별번호) 조회 결과 A호(9.77톤, 승선원 4명)인 것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연락하여 기관실 침수증임을 알게 됐다

이에 울진해경에서는 선장에게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경비정 및 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급파했으며, 선장과 교신을 설정하여 경비정이 도착할때까지 상황을 계속 주시했고 만일을 대비하여 헬기까지 대기시켰다

침수선박 A호 선장과 선원은 경비정이 올때까지 자체 배수작업을 했고 해수가 차올라 엔진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한때 해수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있었으나, 사고확인 55분이 지난 01:50경 울진해경이 도착하여 기관실에



찬 해수를 확인하게 됐을 때, 배수작업으로 인해 해수는 차츰 빠지게 됐고 응급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침수는 되지 않게 됐다

A호는 침수로 인하여 기관엔진 사용을 할 수 없어 경비정에 예민하여 사고발생 7시간 만인 07:57경 후포항까지 안전하게 입항했고 침수선박 선원 4명 모두 건강상

이상 없었으며 선장상대 응급처제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관계자는 "A호 침수원인은 해수파이프 부식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원인은 확인중에 있다"고 했으며 "선박출항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경북 영덕 해상케이블카 사업 현실화,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경북도는 영덕군에서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위해 신청한 매립목적 변경 건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심의회의 심의 가결 조건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권자인 경북도에서 해양수산부 중앙안전관리심의회에 안전 상정을 요청해 진행된 것이다.

심의회는 지난달 25일 이뤄진 매립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8일까지 심의를 거친 결과, 영덕 강구항 지구 공유수면 준공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신청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관리 등 6개 항목에 대한 조건부로 가결했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립목적용 변경할 수 없지만,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용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목적용 변경할 수 있다.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은 민간 자본 336억원을 투입해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km를 잇는 사업이다. 그간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관문이었던 해수부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덕군의 실제계획안 등 남은 절차에 속도를 높여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경곤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관련 경북도에서 향후 매립목적 변경 승인 및 고시를 하면 영덕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이며, 앞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봉화를 일으키다'...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시작!



봉화군 청년공동체인 '봉화를 일으키다'는 지난 10일 유목마을 체험공간에서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탄 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청년창업가 9명으로 구성된 '봉화를 일으키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2022년 12월 자발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지난 4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올해 11월까지 베이킹, 양금플라워, 네일아트 등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고 인문학 콘서트 및 건강의 달 북발파티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소외된 청소년들과 주민

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이재진 대표는 "단체명 그대로 봉화를 일으키기 위해 청년들이 뜻을 모아 공동체를 구성했고, 우리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청소년들에게 취미와 직업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현길 인구전략과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활동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는 남해군의 남다른 수산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에 남해군 수산물 소개

남해군은 지난 16일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홍보 채널인 코리아넷 사이트에 "바다 향이 가득...코리아넷 7개국 명예 기자 입맛 사로잡는 남해 수산물"이란 주제로 남해군의 수산물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코리아넷 취재팀은 7개국 명예 기자와 함께 남해 수산물 요리의 매력을 맛보기 위해 지난달 24 ~ 26일 남해군을 방문했다. 김 아나스타사(카자흐스탄), 팡 투이 중(베트남), 모함마드 이브라힘(인도네시아), 비르지니 솔츠(프랑스), 양 휘이엔(중국), 요시오카 카오리(일본), 카리나 구르(독일) 등 명예 기자 7명이 직접 바다 가득 품은 남해의 맛깔스런 수산물 요리를 맛보고 주요 수산물 명소를 취재했다.

뿐만 환살생선회를 감사 안은 푸른색, 보라색 해초. 그 위로 새빨간 초고추장 양념이 내려앉는다. 여기에 따뜻한 쌀밥 한 공기 넣고 비벼 한 숟가락 떠면 입 안 가득 바다향이 퍼지는 해초회덮밥.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 멸치조림을 상추와 깻잎, 다시마 등에 밥과 함께 싸 먹는다 남해의 독특한 별미 멸치쌈밥. 싱싱한 멸치의 내장과 역선 뼈를 하나 하나 손으로 제거한 뒤 갖은 채소와 함께 매콤하게 무쳐낸 멸치회무침.

세모가시리, 김, 미나리, 양배추, 당근이 가지런히 놓인 밥 위에 매일 아침 해녀들이 남해에서 잡아 오는 싱싱한 노란 성게알이 올라간 성게알 비빔밥.

가는 식당마다 메인 메뉴 외에도 꿀뚜기숙회, 군소, 바지락탕, 오징어 부추전, 서

대회무침, 꿀뚜기 찜갈 등, 남해에서 잡힌 수산물로 만든 요리가 가득 채워져 명예기자들은 "이렇게 반찬이 많아도 되는 거냐"며 거듭 감탄했다.

기자단은 수산물 요리외에도 지속 촉발력, 미조항, 단항위판장, 남해전통시장 등 남해군의 주요 수산물 명소를 찾아 취재를 하며,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에 놀라고,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며 방문일정 내내 즐거워 했다.

남해군 수산자원과 관계자는 "남해군에는 맛있는 수산물이 정말 많은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코리아넷을 통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취재결과는 해외문화홍보원(KOCIS) 코리아넷사이트의 코리아넷 뉴스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으로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윤준기자



의성군,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추진

의성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관내 컨설팅 참여 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수행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해당 사업 추진의 목적과 일정 등을 설명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컨설팅으로 지원할 핵심 7개 과제는 ▲경여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체



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원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신천에서 걷고, 보고, 즐기자!!!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힐링, 신천 야행'성황리 마쳐

신천의 변화된 모습을 즐기고, 앞으로 변화될 미래 모습을 홍보



대구광역시 16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대봉고 인근 신천 둔치에서 시민 100여 명과 흥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함께하는 '힐링, 신천 야행'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천 수변공원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한 신천 둔치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상동·경대·성북분수의 시설개선 및 야간조명 설치사업의 준공으로 신천변 보행로가 넓어지고,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같이 사용하던 일부 구간을 완전히 정비·분리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했다.

흥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시민들은 대봉고 둔지에서 상동 분수까지 2km 정도를 함께 걸어가면서 새롭게 변화된 안전한 보행환경을 체험하며 신천을 감상하고 즐겼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k-드론 시스템 실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드론과 로봇게(사족보행 로봇)를 활용한 미래 신천 관리 방안도 시연했다.

대구광역시는 민선 8기 미래 50년 계획 중 하나로, 매년 6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신천을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신천 수변공원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변화 중인 신천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 신천 수변공원화 계획 4대 전략

1. 생태·문화·활력·스마트한 고품격 수변공원화
2. 풍부한 양양, 깨끗한 수질, 약취 Zero 건강한 물길 복원
3.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시민 일상 향유 수변공간 도전
4.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신천수변 행정시스템 구축

이날 행사에 참가한 흥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푸른 신천숲, 사계절 물놀이장, 리버뷰테라스 등 시민들이 신천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신천에서 가족·친구들과 함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함께 해요' 기부 쏟아져

더스카이 박진규 실장 500만원, 삼천초등학교 제24회 졸업생 340만원 등 예천군 응원



예천군이 지난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예천군을 응원하기 위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항공사 더스카이 박진규 실장이 500만원 통 큰 기부를 했으며 이어 △K.E(주)코엘 권오대 대표 300만원 △(주)모리스 손성욱 대표의 자녀 손소영 200만 원 △킵스팜 김시택 대표의 자녀 김건휘 200만원 등 예천군 발전에 힘을 보탬다.

그 밖에도 김천면 삼천초등학교 제24회

졸업생들이 340만원의 소중한 기탁금을 전달하는 등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으고 있어 미담이 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군의 도약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부금은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빅데이터 분석 통해 정책방향 제시한다

올해의 분석 키워드 '생활인구', '관광지', '지역축제'

구미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6 ~ 10월까지 진행한다.

올해 분석 키워드는 생활인구, 관광지, 지역축제 3개이며, 세부 주제는 △생활인구(생활인구 현황 분석, 구미시 인구 유입·유출 패턴 분석, 청년 행동 패턴 분석), △관광지(관광지 방문 현황 분석), △지역축제(지역축제 개최 효과 분석) 등 6개다.

생활인구 분석은 올해부터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생활인구를 비교하고, 구미시 인구 유입·유출 패턴 등을 분석해 생활인구 대응 전략 및 인구정책 수립 시 활용될 예정이다.

관광지 분석은 거주지, 연령, 업종, 소비 매출액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패턴 파악으로 '낭만문화 품격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에 활용되며, 지역축제 분석은 방문객들의 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개최 성과 결과를 제공해 향후 축제 기획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시정 현안 해결의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각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분석 과제들이 시정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첨단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경북농산물산지유통확바뀐다!

산지유통 디지털 전면 도입, 데이터기반 APC 운영체제 구축

경북도는 산지유통시설을 스마트 APC(Agriculture Products Processing Center : 산지유통센터)로 구축해 시설을 첨단화하고 규모화된 품목별 마케팅조직을 중점 육성해 산지유통을 디지털화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91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APC 22개소를 구축하고, APC정보지원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데이터 기반 농산물 유통체제를 조성한다.

또 APC 기반으로 품목별 농가를 조직화하고 마케팅조직과 연계해 농산물 산지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APC는 로봇·센서·통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농산물의 입고·저장·선별·포장·출고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축적과 디지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소비지까지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는 산지유통시설이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거점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 도모

현재 도내 운영 중인 APC 96개소 중 70%가 노후화되어 농산물 처리능력과 운영효율이 떨어져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경북도는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APC를 스마트 APC로 설치해 시설을 첨단화하고, 시군의 품목별 대표 APC를 선정해 구



모화된 물량처리와 데이터 관리 등 주산지별 운영으로 산지 유통을 거점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총사업비 296억 원(국비 119)을 투입해 2024년까지 스마트 APC 11개소를 우선 설치한다.

또 매년 도 자체 재원으로 노후화된 기존 APC에 AI 선별기, 로봇설비,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지원해 산지유통시설의 거점화·첨단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APC운영체제 도입으로 산지유통 전·후방 활용

경북도는 2024년부터 도내 APC에 정보지원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산지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취급하고 관리자의 경험으로 운영하던 기존 APC운영체제를 데이터기반 디지털 운영체제로 개편해 운영효율을 높이고 생산·유통 전·후방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출하농가의 규모, 단위생산량, 품종, 출하시기 등 경영정보와 선별된 농산물의 데

이터를 활용한 농가별 맞춤 컨설팅 제공으로 농산물 품질·생산성을 향상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시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입고·선별·출고·정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품질·브랜드 관리와 농산물 상품정보추적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품목 중심으로 산지유통구조 개선 박차 경북도와 시군은 올해부터 원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여건, 생산기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을 선택해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을 통합한 '원예산업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산지 위주로 전략 품종 생산자를 집중 육성하고 APC에서 상품화를 거쳐 부가가치를 높여 전문품목 취급 마케팅조직을 통해 유통업체로 판매하면서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줄여 농산물 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협연합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포항, 안동, 영주, 영천, 문경, 경산의 마케팅조직은 지역농협 등의 출자를 통해 2024년까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전문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경주, 김천,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청도, 고령, 봉화, 전문품목 농산물 취급을 확대하고 농가-APC-마케팅조직 형태로 농산물 출하 수직계열화를 통한 전속출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daily(데일리)' 브랜드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

전국 과수 최대 주산지인 경북은 2016년부터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4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 단위 과수 통합브랜드 'daily(데일리)'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통합브랜드를 시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군 브랜드간의 출하경쟁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생산된 상위 50% 이상에 해당하는 품위의 농산물만 출하될 수 있도록 종량, 당도, 선택 등 품위 선별기준을 마련해 품질을 균일화했다.

또 철저한 품질관리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daily(데일리)'출시조직은 2016년 31개 조직에서 2022년 62개 조직으로 확대되고, 매출액은 같은 기간 214억 원에서 838억 원까지 늘어나 매년 평균 60%대 성장을 보였다.

이해 2022년에는 중국,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으로 651만\$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daily(데일리)'브랜드 농산물 전문 생산능력을 육성하고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이력관리와 표준 재배 매뉴얼 보급 등 농가 경영컨설팅을 강화해 고급 브랜드 농산물로서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산물 유통 대전환은 스마트 APC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스마트 팜 도입 등 생산분야에서 시작된 경북 농업대전환을 유통분야로 확대해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산지유통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안전하고 신나게 '영주시민 자전거 페스티벌' 24일 개최

- 4년 만에 재개, 별도의 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영주시, 2014년부터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사고 보장'



- 영주시, 2014년부터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사고 보장'

영주시가 오는 24일 오전 8시 30분 영주교 아래 서천 둔치에서 '2023 영주시민 자전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시민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영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주시 자전거 연맹이 주관한다.

이날 대회는 10시 개최식, 국민의례, 대회사, 부시장 인사말씀, 경품추첨에 이어 오전 10시 30분 서천 인라인스케이트장(영주교아래)을 출발해 적서교를 반환점으로 돌아 경전철을 지난 다시 서천 둔치인 영주교로 돌아오는 약 10km 코스로 1시간 정도 진행된다.



대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참가자 500명에게는 경품권과 간식 및 기념수건이 제공된다. 경품으로는 자전거, 전자제품 및 헬멧 등 자전거 관련 용품을 준비해 당첨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권정상 영주시자전거연맹회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다시 개최됐다"라며 "자전거 타기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가족·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서천 강변을 달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는 자전거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전거 관

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2014년부터 영주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영주시민의 상해에 대한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단 시 10만 원부터 30만 원의 진단위로금과 20만 원의 입원지원비를 지급하며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함께 지원한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우박피해농가 현장 점검 및 긴급 복구 지원

영양군 6월 15일 우박으로 약 100ha의 농작물 피해 발생

영양군은 6월 17일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지역구를 방문한 국회의원(국회의원 박형수)을 비롯해 영양군 의회(김석현 의장) 의원들과 함께 재해 피해현장을 점검하며 복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대책을 협의했다.

고추·사과·담배 등 농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우박피해 정밀조사가 끝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1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생육 및 품질저하, 결실 불량 등 농작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영농자재



(생육촉진제, 영양제 등) 구입비를 피해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 병해충 방제 및 농작물 사후 관리요령을 지도하고, 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와 협력하여 우박 피해농가에 영양제를 무상 공급하여 피해 농작물에 긴급 살포하도록 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SFTS 주의 당부

경주시보건소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북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발열,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매개체인 작은소피참진드기는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므로 봄부터 가을까지 야산이나 들뜬에서 활동 시 주의해야 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주로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생한다.

증상은 고열(38°C이상),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예방백신이 없고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 할 수 있다.

예방방법으로는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4시간 간격으로 뿌리고 긴 옷을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태용/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미래소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 도레이 방문

경북도 탄소섬유 육성 방안과 맞춤형 인력 지원 협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17일 이틀간 도레이 도쿄 본사 및 가마쿠라에 위치한 첨단융합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창호 구미시장이 동행했으며, 이철우 지사는 일본 도레이그룹 닛카쿠 야키히로 사장과 한국 도레이첨단 소재 이영관 회장 등 임직원들과 탄소 섬유산업 및 도레이 한국법인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탄소섬유와 필름 등 첨단소재 부문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외투 기업이다.

구미지역에만 5개 공장에 1천700여명의 임직원이 고용돼 있으며, 지난해 기준 2조7천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한편, 일본 도레이그룹은 한국·중국·미국 등 전 세계 29개국에 4만9천명의 고용 인원을 두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25

조원 규모의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 10대 정책과 맞물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경차의 대중화, 신재생에너지 비용 확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등 도레이그룹의 글로벌 선도 분야인 탄소섬유 산업의 경북도 정책 방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닛카쿠 야키히로 사장에게 “도레이그룹의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구미에 지속적인 투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맞춤형 인력제공을 통해 신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착 지원

영주시는 19일 올해 상반기 입국한 결혼 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화합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2일 필리핀 계절근로자 99명 대상 프로그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영주시가 진행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화합행사다.

시는 이날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59명(베트남 54명, 필리핀 4명)을 대상으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잣나무 숲 해먹 체험과 통나무 명상, 수(水) 치유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마련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포레스트리(Forestory) 캠프와 연계해 추진됐다.

풍기를 농가에 초청된 편반키씨(베트남, 39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며 영농작업 피로를 털어낸 더없이 좋은 하루였다”며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 준 영주시와 국립산림치

유원의 배려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덕조 농업정책과 과장은 “농가형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도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농가형 계절근로자와 차별 없이 대우해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영주지역 농촌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69농가에 183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3개 도시 124명이 39농가에, 결혼이민자 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59명이 30농가에 배치되어 현재 고용농가와 함께 다양한 영농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농가와 소통의 역할을 위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언어소통도우미를 지정 배치하고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역할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영양의 축구인들 홍보활동에 나서다!

영양군 양수발전소 성공적 유치를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영양군민들의 열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28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에 참가한 영양군 축구 대표팀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제28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는 포항시 양덕스포츠타운에서 2023년 6월 17일부터 6월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도내 23개팀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양군축구협회에서 20여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여 대회에 출전했으며 50대 부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금회 대회에서 영양군 축구선수단은 영양군의 양수발전 유치홍보를 위해 영양군 양수발전유치 홍보 유니폼을 착용하고 대회에 참가한 경상북도 축구협회 관계자 및 22개 타시군 선수단에 대하여 영양군 양수발전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의 숙원사업인 양수발전유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양군 축구인들의 열정

과 노고에 감사하며 향후에도 양수발전유치를 위해 일치단결해주시 바란다”고 했고, 권도원 영양군 축구협회장은 “영양군의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는 그날까지 축구인들의 열망을 결집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영양군 축구협회에서는 6월 3일에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영양군 축구인 양수발전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6월 16일에는 영양군 양수발전유치위원회 체육인 결의대회에도 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양수발전유치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참가한 지역민에 대하여 축구공 전달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가 있다.

향후 영양군 축구협회에서는 2030경북리그축구대회(8월), 50대 마스터스리그(6월~10월)에 참가하여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청년 주거 안정성 높인다!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건축기획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청송군은 지난 6월 16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 빌리지 건립사업 건축기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청년층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직장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 빌리지 건립사업’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

업’은 청송읍 월막리 204-1번지 일원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총 51세대 원룸형 공간을 조성하고, 필로티 주차장, 옥상 휴게공간 쉼터 및 외부조경시설, 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안동 예비문화도시 사업 '깊고 넓은 안동 프로젝트' 『꿈이 있는 서경지 골목길 : 문화로 놀 날』개최

주민참여로 고유한 마을문화 콘텐츠를 발굴·육성

시민역(力)사문화도시 안동에서 『꿈이 있는 서경지 골목길 : 문화로 놀 날』을 17일 태화동 서경지마을 일원에서 개최했다.

도심 내 상대적으로 문화적 삶이 부족한 고령화된 골목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향유할 문화를 찾고 마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풍물길놀이, 서예·도예 퍼포먼스, 작품 경매 등 공연과 전시, 골목 벽화 그리기, 민화 그리기, 타투&페이스페인팅, 조각, 부채&편지쓰기 등 마을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예술가, 방문객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천연염색 장인인 신계남 작가와 함께 100m 골목길을 쪽빛 염색으로 꾸미는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태화동 서경지 골목마을은 2019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마을 공동체 형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오며 ‘꿈이 있는 서경지길’이라는 마을 콘텐츠를 바탕으로 특색있는 마을문화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문화도시사업에 전·후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서경지 마을에 자리 잡았고 기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활동한



으로써 삭막했던 골목에 문화인들의 유입과 활동뿐 아니라 벽화거리, 예술상점 등을 찾는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문화도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 도시재생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현재 추진 중인 태화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서경지마을 주민들은 “예전엔 1년에 한두 번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었지만 문화도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주 모여 마을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생겼다”라

며 “골목에 함께 사는 예술인 이웃들과 함께 주민뿐 아니라 손님들까지 모두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내 고령화된 마을들이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찾고 특색있는 문화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로, 나아가 도시의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주 보문단지, 맥주와 음악으로 들썩였다’ ‘2023 경주 술술페스티벌’성료

- 6.16.~6.18. 3일간 1만8000여 명 방문,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아울러
- 100여종 넘는 수제맥주에 밴드와 디제잉으로 행사장 흥 돋우어
- 주낙영 시장, “한산한 보문단지가 이번 페스티벌로 활기를 되찾아 매우 기쁘다”

지난 3일간 보문단지를 뜨겁게 달군 ‘경주 술술페스티벌’이 1만8000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지난 18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페스티벌은 식음료를 테마로 숙박단지가 집중된 보문단지 중심부에서 열려 관광객을 행사에 참여시키고 이들이 지역에 이색적인 이벤트를 경험하며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수제맥주 제조업체를 다양하게 참여시켜 창의적이고 독특한 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수제맥주존을 축제의 핵심 공간으로 구성했다.

축제장에는 유명 수제맥주 브루어리 13곳이 참여해 100여 종에 넘는 다양한 수제맥주를 선보여 관람객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초여름 무더위를 식히며 축제를 즐겼다.

수제맥주 외에도 경주법주, 백년주조, 오미나라, 부자진이 함께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술을 맛볼 수 있는 전통주존도 함께 운영됐다. 술과 함께 곁들일 안주류 푸드트럭 인기 도 맥주 못지 않았다.

지난해 먹거리가 부족했던 문제점을 보완해 닭강정, 케밥, 타코야키 등은 물론 와플, 아이스크림, 코코넛 새우튀김 등 다양한 음식을



합리적으로 제공해 전 연령층을 누는 시간까지 행사장에 머무르게 했다.

축제기간 동안 메인 무대에서는 힙합, 밴드와 디제잉(EDM) 등 여러 장르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환호했고,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사를 왕래할 수 있도록 경주역, 시내권, 동경주 등 3군데 셔틀버스를 하루 2~3회 운

행 했으며, 13명의 안전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질서정연한 행사장을 운영했다.

주낙영 시장은 “그간 황리단길, 대릉원 등 시내권에 비해 한산했던 보문단지가 모처럼 이번 페스티벌로 활기를 되찾아 매우 기쁘다”며 “봄, 여름에 이어 가을과 겨울에 개최될 힐링페스타, 경주의 빛 인생샷 페스타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4회 연속 종합 우승 초석 다져

-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 교사 연수 실시 - 임종식 교육감, "전국기능경기대회 4년 연속 종합 우승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금),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도내 직업계고 기능경기 지도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한민국 기능경기의 표준으로 우뚝 선 경상북도 직업계고의 기능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4회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기능경기대회 지원 방안 안내 ▲기능경기 실태 분석 ▲참가 학생 안전 지도 안내 등으로 구성했으며, 연수

에 참가한 지도교사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다양한 지도 역량을 공유했다.

아울러 내년 경상북도에서 개최 예정인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의견 공유도 함께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우수한 기능 역량을 교육청,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국기능경기대회 4년 연속 종합 우승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 공동연수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과 수업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전북미래교육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16~17일 이틀간 군산 라마다호텔 '2023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초.중.고 교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은 전북미래학교의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활동한다.

70여 명의 현장지원단이 참여한 공동연수는 주제 강의와 함께 분임별 협의를 통해 전북미래학교 건설성 성과와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언 사항을 공유·환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KERIS 서영석 수석연구위원이 '변화하는 세상! 미래교육과 인간역량'을 주제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과 학교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대야초 김성아 교사가 'IB 교육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IB 교육의 수업 사례, 교수학습 접근 방법 등을 소개한다.

민안성 미래교육과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전북미래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 공동연수에서 논의·협의를 바탕으로 전북미래교육의 실현 방향을 모색하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구희망교육지구는 20일 동진초 드림홀에서 전교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기훈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구희망교육지구 북적북적 책다락방 사업의 하나다. 다양한 형태의 독서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을 키우고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기훈 작가와 지역사회 도서큐레이션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이들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을 2차시 3회차에 걸쳐 학년별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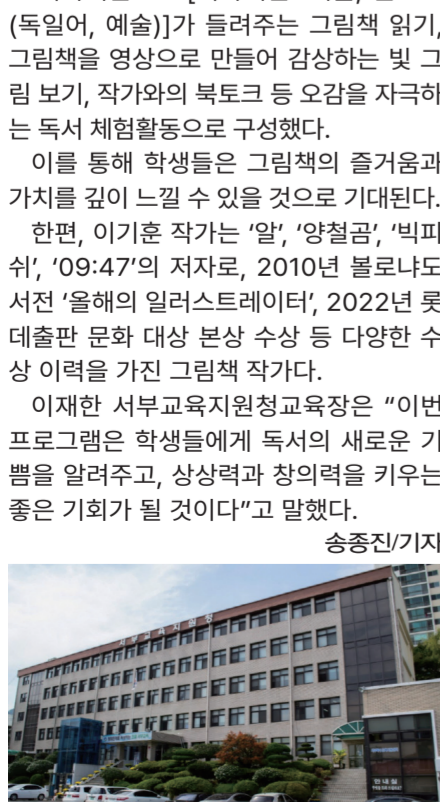
'이야기판트스[이야기꾼+예술, 쿤스트(독일어, 예술)]가 들려주는 그림책 읽기, 그림책을 영상으로 만들어 감상하는 빛 그림 보기, 작가와의 토크 등 오감을 자극하는 독서 체험활동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그림책의 즐거움과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기훈 작가는 '알', '양철곰', '빅피쉬', '09:47'의 저자로, 2010년 볼로냐 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2022년 롯데출판 문화 대상 본상 수상 등 다양한 수상 이력을 가진 그림책 작가다.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독서의 새로운 기쁨을 알려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문경시청소년어울림마당 진로생각축제

재미나래~신나고, 청소년이 만든 축제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은 6월 17일 모전공원에서 청소년과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어울림마당 진로생각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문경시·문경교육지원청(미래교육지구사업)이 주최하고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문경지구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특히 여느마당 중 '어른들의 꿈 탐색'이라는 코너는 지역 내 성공한 청년 사업가의 꿈과 진로 탐색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으로 동아리 체험부스 11개와 공연 13개팀 그리고 초대 가수 '경서'의 공연으로 풍성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청소년 문화와 기성세대 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경지역학부모에서도 공연 및 체험부스 운영에 참여했다.



행사를 준비한 청소년 대표(문경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00)는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 대표로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팀 회장들과 공연·체험부스 대표들의 책임감과 단합력이 좋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 청소년이 더욱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별도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개입과 조치가 필수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6월 15일 봉화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고위직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2023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별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기관 및 교내 4대 폭력을 예방하고, 사안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박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관리자로서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



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사안 처리 방법 위주로 진행했다. 또한, 기관장·교장의 폭력 예방을 위한 리더십 교육, 교감·행정실장의 인권감수성 함양 교육을 포함했다.

박명호 교육장은 "오늘 연수가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기관·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조직원 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서울시교육청, '2023 IB 탐색학교'로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향한 여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조성을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학교 31교를 '2023 국제바칼로레아(IB) 탐색학교'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16교를 IB 탐색학교로 선정했으며, 교당 1,200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교원학습공동체 활동과 연수 등을 통해 IB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고, IB 프로그램 운영 원리에 기반한 수업과 평가활동을 실천한다.

'IB 탐색학교'는 당초 20여 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31교로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IB 탐색학교'운영을 위해 개별 학교에 △IB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교육청 주관 3단계 맞춤형 연수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인스쿨(In-

school) 퍼실리테이터형 워크숍 운영 △IB 관련 기관 탐방 프로그램 제공 등 학교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IB 탐색학교' 운영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미래형 학교교육체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IB 탐색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 체제와 수업·평가 방법을 시스템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질 높은 교육,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IB(국제바칼로레아)적 방법론을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한국형 바칼로레아(KB)의 길을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IB 탐색학교가 IB 프로그램 연구·실천 과정에서 IB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가 'IB 관심학교'

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IB 탐색학교 운영은 KB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KB 구현을 통해 서울교육은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고 글로벌 선진교육으로 당당히 서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16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협약 체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6일 오후 4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김덕기 전라기획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직업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 발전에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진로·직업 교육 관련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부산지역 학교와 학생들의 진로·직업 교육지원, 관련 연구와 정책 추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진로·직업 교육을 성장시키고 관련 연구와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진로·직업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명장(名匠)의 숙련 기술 체험 기회로 이론과 실력 겸비한 인재 키울 것"

도교육청, (사)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와 업무협약식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16일 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회장 배명직)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학생 진로직업 체험과 숙련 기술 경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배 회장을 비롯,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다수 참여해 첨단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숙련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 지원 ▲고교학점제 연계 학교 밖 교육기관 지정 협력 ▲양 기관 간 인프라 지원 체계 구축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학생 장학금 지원 등으로 학생의 숙련 기술 이해도 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현장

의 숙련된 기술 체험이 확대돼 학생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인 역량 강화와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명장(名匠)은 개인의 노력과 실력은 기본이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분"이라며 "금번 협약으로 숙련기술 명장의 살아있는 경험을 배울 수 있어 우리 학생들의 기술 역량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문무를 겸비하듯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자기 일과 삶의 주인이 되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만식기자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학부모교육' 운영

광주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예방지원기관 지세움이 오는 20일부터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활동 정상화로 인해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시교육청은 가정교육과 연계해 현실성 있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익혀, 학교폭력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전문가와의 대화 시간과 공예 체험 행사를 마련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의 마음도 위로하고자 한다.

올해 교육은 오는 20일·22일·29일 18시30분~20시 30분까지 총 3차례 운영한다. 강의 첫날인 20일에는 지세움에서 임상삼선전화가 이세라 박사가 'ADHD 아동 및 청소년의 이해와 적절한 양육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22일은 봉선동 '동네작업실'에서 공예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족공예 체험이 운영된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지세움에서 샘솟는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김금운 소장의 '청소년 인지·정서·행동의 이해와 건강한 소통 방법'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후에는 전문가와 학부모와의 상담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초·중·고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관심이 있거나, 자녀 양육에 고민이 필요한 학부모이다. 신청 방법은 학교폭력전담지원기관 '지세움'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청 엄길훈 체육예술인성교육 과장은 "부모가 학교폭력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녀 학교폭력 경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전남교육청자연탐구원, 2023.자연관찰탐구대회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이 6월 16일 광주호수생태원에서 도내 5,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 전남도자연관찰탐구대회를 운영했다.

과학의 기본인 관찰 탐구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과학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동일학교 학생 2명이 한 모듬을 이뤄 103교 152팀, 총 304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정된 지역에서 식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모듬원끼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야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참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과학적 관찰 탐구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강숙영 원장은 "이번 자연관찰탐구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모듬원과 협동하여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토론과 탐구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탐구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기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6~8월 도내 7개 권역별 산업단지, 하천 폐수배출업체 221곳 특별 감시·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동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 복구 유도과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오산시보건소, 다방 48곳 대상 불법영업 행위 점검

오산시보건소는 6월 7일부터 5일간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다방 4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점검했으며, 특히 오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이 제기된 다방 등 5개 영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특별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도심에 위치한 다방에서 티켓영업행위 및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행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시, 복날 앞두고 개고기 식당 등 위생점검 추진!

오세훈 시장, "식품위생법 위반 개고기 식당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서울시가 7월 초복을 대비하여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추진한다.

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인천시, 과적차량 운행 근절 나섰다

6월15일 인천항·인천대교·영종 진입로 등에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인천광역시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15일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단속 및 과적 근절 홍보에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이번 단속에서는 과적 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뀌며 새벽·주간 단속을 실시했다.



사천시, 경남도 산불방지대책 최우수 기관 선정

사천시는 경남도의 '2023년 산불방지대책(예방·대응)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진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산불진화 훈련 실시로 2022년 경남도의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남원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남원시는 6월중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개방하여 밤샘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대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기 시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양 들머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머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마을,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선계곡, 침백곡원, 축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랑생태공원, 영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랑공룡박물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랑산촌생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호혜로운 달성문화도시, 지역민과 함께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만든다.

D-day프린지 콘서트 / 찾아가는 음악회 - 예술산책 with 피아노 개최 '달성 100 피아노'콘서트 연주 참여자 모집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2023년 '달성100대피아노'(9월 23, 24 일 개최)공연 개최 D-day 100일을 맞아 공연에 참여할 시민피아니스트 모집과 함께 'D-day 프린지 콘서트'와 찾아가는 음악회 '예술산책 with 피아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참여와 주민들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달성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더불어 대구음악협회와 협력한다.



국제적인 피아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달성 100대 피아노'는 달성의 문화원형 자원을 활용한 독특한 지역문화콘텐츠로 한국 최초로 피아노를 들여오게 된 사문진 나루터라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축제 기간 중 달성 전역에 피아노 전자, 동호인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4회의 'D-day프린지 콘서트'와 11회의 찾아가는 공연 - 예술산책 With 피아노'를 기획했다.

이번 공연은 전문 연주자와 달성군 인근 지역에 사는 피아노 전자, 동호인 및 학생들을 선발해서 함께 만드는 연주회로 달성군민의 콘텐츠인 '달성 100대 피아노'와 'D-day프린지콘서트', 찾아가는 공연 - 예술산책 With 피아노'에 참여하여 함께 홍보하여 달성군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 자신의 재능을 호혜롭게 나눈다는 의미를 가진다.

찾아가는 음악회-예술산책 With 피아노 '는 피아노가 뭐예요?'라는 부제로 많은

텐츠인 '달성100대 피아노'가 단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되어 더욱 풍성하고 많은 지역민이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문화도시 달성군의 이미지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2023 달성 100대 피아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00인의 피아니스트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피아노 전공자(4년제 음악대학 기준 재학생 및 졸업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6월 26일부터 7월 28일 17시까지 참가신청서 및 자유곡 1곡 연주 영상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동현/기자

올 여름엔 함평에서 '뮤캉스·북캉스' 어때요?

함평군립미술관·군립도서관·엑스포공원 등 관광명소 '눈길'

6월에 접어들면서 부쩍 무더워진 날씨로 지친 일상 속 심과 힐링이 필요하다면, 함평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뮤캉스'(뮤지엄+바캉스), '북캉스'(책+바캉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함평군은 오는 7월2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기획전으로 '풍경과 감정이입'을 개최한다. 노은영, 박동근, 박인선, 윤준영 등 4명의 작가가 자연과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는 평소 성실한 작업 태도와 높은 완성도로 주목받아온 인기 작가들의 최신 작품까지 볼 수 있어, 입소문을 타고 관람객과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11월 엑스포공원 내에 개관한 함평군립미술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 엑스포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미술관의 외관은 양 날개를 펼쳐 날아가고 있는 나비 형상으로, 지상 2층 규모에 총 3개의 전시실이 마련돼 있으며 건물 양쪽에는 수장고와 자료실, 학예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특별전과 기획전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예술인 문화예술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주요 소장품은 함평 출신 오당 안동숙 작품 170점과 미술품 수집가인 기산 안종일 선생의 기증작 135점, 안숙 이태길 작품 51점, 백열 김영태 작품 48점 등 총 492점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야외 공원에는 오당 안동숙 화백이 평생 수집한 희귀 수석과 괴석으로



조성된 수석공원이 마련돼 있다.

군립미술관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미술관 옆 카페 '풍경'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엑스포공원의 꽃과 나무, 푸른 녹지를 한눈에 담아도 좋겠다.

그런가 하면, 엑스포공원 건너편 화양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함평군립도서관은 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민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8년 문을 연 함평군립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강의실, 보존서고실, 정보검색실, 함평군 평생학습관 등을 갖추고 있다.

총 3만3천647권의 도서와 전자책, DVD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도서관 야외에는 잔디밭, 야외의자, 놀이터 등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연 속에 위치하여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사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함평군립도서관은 하절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자료실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더운 여름, 전시를 관람하고 독서도 하시며 함평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기자

신안군, 캐시워크와 함께 '배로 가는 섬 수국축제' 진행

섬 수국축제 구경하며 인생샷 찍고, 캐시도 받고!

신안군은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으로 유명한 도초도에서 '섬 수국축제'기간 관광객 유치에 위해 '배로 가는 섬 수국축제 인생샷 스탬프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번 챌린지는 누적 내려받기 수 2,000만 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600만 명에 이르는 낫지엘스케어가 운영하는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의 B2B-B2G 플랫폼 '팀워크'에서 진행한다.

보상 방법은 주요 지점을 걷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인증하는 스탬프 챌린지 보상, 스탬프 코스에서 인생샷 인증 보상, 스탬프 1개 이상 획득하고 쓰레기 줌 사진 인증 보상과 신안군 관내 소비 영수증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캐시워크 앱을 설치 후 주화면 팀워크에 접속해 신안군 인생샷 스탬프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스탬프 챌린지는 축제 기간인 6월 25일 까지 진행되며, 스탬프 장소는 천사대교,



비금 하트해변, 도초 환상의 정원과 수국정원 등 10곳이다.

10곳 중 1곳이라도 방문한 모든 참가자에게 챌린지 종료 후 캐시를 배당하며, 인증사진과 함께 많은 곳을 방문할수록 더 많은 캐시를 받을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캐시워크 챌린지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섬 수국축제 기간에 '모범도시' 인증을 받은 '환상의 정원(팽나무 10리길)'과 핫플레이스도 함께 방문해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영등포구, 이웃과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영플마켓 어때?

영등포구가 24일 오전 11시 당산공원에서 '슬기로운 나눔생활, 다시쓰는 영플어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플리마켓의 뜻을 담은 영플마켓은 일상 생활 속 친환경 소비문화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가족친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슬기로운 나눔생활'을 주제로 물품나눔, 문화나눔, 체험나눔이 펼쳐진다.

먼저 당산공원 중앙광장에서는 사전에 신청을 받은 60팀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1인 나눔마켓의 운영자가 되어 집에서 안쓰는 의류, 장난감, 신발, 도서 등 다양한 품목을 이웃과 나누거나 판매한다.

다음으로 무대 앞 문화나눔존에서는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쇼, 버블쇼, 청소년 동아리의 버스킹과 댄스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놀이터 앞 체험나눔존에서는 달고나 만들기,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양말목 공예, 페이스페인팅 그리기, 소방안전체험

등 레트로와 친환경,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선보인다. 체험 참가비 1천 원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해져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폐건전지를 새건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컵 대신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등 친환경 착한 축제를 표방한다. 또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자율 기부함을 운영해 기부 문화 확산에도 동참한다.



구에 따르면 영플마켓이 어린이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상품을 진열하고 스스로 판매하면서 올바른 경제 개념을 배우고, 가족들에게는 자원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외적 자치행정과정은 "코로나로 단절됐던 이웃, 가족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영플마켓을 4년 만에 개최한다"라며 "자원순환과 나눔문화 확산은 물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영플마켓이 일회성이 아니라 영등

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이자 플리마켓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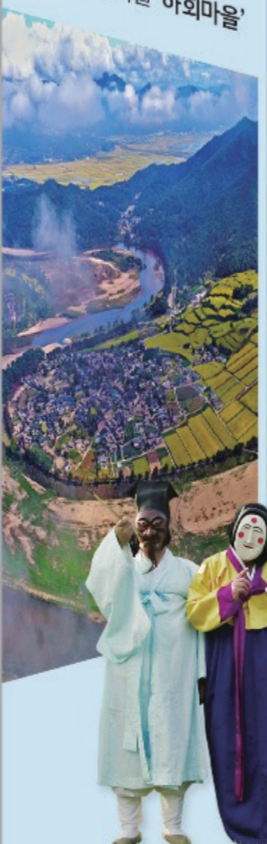
인동시 CHANCE & INNOVATION 2023 연동시승격 50주년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경북도민의 생활안전, 자율방범대와 함께! 새롭게 출발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자율방범대법 시행(4.27), 자율방범대 법정조직으로 새롭게 출발

경북도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청도 공설운동장에서 도내 자율방범대원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의 생활안전 자율방범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경상북도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경북자율방범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만희 국회의원,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이선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하수 청도군수, 김효태 청도군의회의장, 서천열 대한민국 자율방범중앙회장, 나문식 경북 자율방범연합회 회장, 전임숙 경북자율방범연합회 여성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제15회 자율방범대 한마음다짐대회는 올해 4월 27일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거듭난 해에 치러지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간 지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던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첫째 날에는 청도군청에서 청도역 일원까지 경북자율방범연합회와 청도 자율방범연합대를 중심으로 300여명의 대원들이 거리캠페인을 통해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예방 등 지역지원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둘째 날에는 한마음다짐대회를 통해 바쁜 일상에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자율방범대원 30여명에게 도지사표창을 수여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법정단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체육대회를 통해 대원 간 화합과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축하

를 통해 "내 고향은 내가 지킨다는 의지로 지역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앞으로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환경부, 도시침수 예방위해 지자체 빗물받이 관리현황 집중 점검

환경부는 6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받이 관리 미흡이 침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도시침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수관로에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하며,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막힘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별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실적,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고, 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 지자체별로 빗물받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빗물받이 청소주기(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는 등 침수 시 맨홀에 빠지는 인명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 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빗물받이에 담배꽂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윤석열 대통령, BIE 총회에서 직접 영어 연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 강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PSY(싸이), 조수미, 카리나(에스파 리더) 등 글로벌 유명 인사와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경쟁 PT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6. 20일 오후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하여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 PT로, 이날 우리나라(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세계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사로 등장할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로 PT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대중 정신 계승발전 전남도가 앞장설 것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에 '민주·평화·인권' 정신 확산 큰 역할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에 참석해 재단 창립을 축하하고 "김대중 정신 계승·발전에 전남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정구선·김재형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공동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대철 행정총장, 김홍걸 김대중재단 부이사장, 김홍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오시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삶과 시대정신을 이어가자"고 회고했다.

또 "오늘날 대내외 경제위기에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의 통찰과 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김대중재단도 민주·평화·인권의 김대중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더 큰 역할을 해 주

길"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매년 '김대중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김대중 평화캠프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평화·인권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3일간 김'대중평화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2024년엔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영국 최대 음식 축제에 500년 안동 고조리서 '수운잡방' 음식 선보여

'테이스트 오브 런던'에 안동 중가 음식 선보여

영국 최대 음식축제 '테이스트 오브 런던'에 500년 전통의 안동 중가 음식이 소개됐다.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 리젠트파크(Regent's Park)에서 열린 '테이스트 오브 런던(Taste of London)'에 참가해 안동 홍보 부스를 열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테이스트 오브 런던(Taste of London)'은 매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영국 최대 음식 축제다. 이번 축제에는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스타 셰프와 유명 레스토랑, 식품 기업 등이 참가하여 다양한 음식을 전시, 판매하고 시식 및 시음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서 500년 역사의 안동 고(古)조리사인 '수운잡방'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행사가 18일까지 진행됐다. 설월당 김도은 중부가 직접 '전계야법(煎鷄兪法)'이라는 닭고기 레시피를 비롯해 가지모듬이. 함께 미역국, 수박, 약과 등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며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단순 시식행사가 아닌 요리 수업, 레시피 공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동 전통의 맛을 홍보했다.

안동 부스에는 1895년 설립되어 120

년 전통의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Le Cordon Bleu London Campus)의 조리학과장인 에밀 미네브(Emil Minev)와 11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영국의 가장 오래된 요리 학교인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Westminster Kingsway College)의 외식 커리큘럼 매니저인 미란다 콰트릴(Miranda Quantrill) 등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영국의 저명한 석학과 셰프, 요식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안동 음식을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둘째 날인 15일 행사에서, 한국정신문화재단은 런던의 한국문화원과 함께 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1999년 4월 안동 방문을 기념하며 'Memory Royal Way' 행사를 진행했다. 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양국 간 문화교류와 증진을 위해 힘쓴 점을 기리는다는 점에서 현지 매스컴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이번 축제 참여를 계기로 안동 음식을 비롯해 관광·농업·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인지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세계유산도시지구 아태사무처 자격으로 베트남 찾아 2025 APEC 경주 홍보

'2023 후에 페스티벌' 참석, 국영방송 등 언론과 인터뷰하며 경주 알릴

경주시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베트남에서 열린 '2023 후에 페스티벌'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와 '나남'(베트남 궁정음악)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주년과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트남 후에시 지방정부가 주최한 행사다.

경주시는 세계유산도시지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처(OVHC-AP) 자격으로 이번 축제에 참석해 양 도시 간 우호 증진과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축제는 유·무형 세계문화유산 활용의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축제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오는 10월 경주시 열릴 '제4차 세계유산도시 아태지역총회'에 접목할 계획이다.

이번 아태지역총회의 주제가 '유·무형유산 활용을 통한 세계유산도시의 역량강화'인 만큼,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김성학 경주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아태

지역사무처 방문단은 후에 페스티벌 일정을 소화한 이후 19일에는 '호이안' 시청사로 이동해 양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호이안문화유산관리부존센터를 찾아 세계유산 분야 △조사·연구 △국제학술심포지움 △청소년 및 청년 교육프로그램 △지식·정보공유 등 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우유엔 반 산 호이안 시 인민위원장은 "호이안의 여러 민족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역사도시"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국제도시인 경주와의 적극적인 교류·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성학 부시장은 아태지역사무처 방문단장 자격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국영방송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와 차례로 인터뷰를 하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윤태용/기자



한계까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빗물받이?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시는 세 차례 빗물 받기 위해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도시 내 저층 건물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통해 빗물을 신속히 배출합니다.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꽂이,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등을 버리지 않습니다. 빗물받이를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빗물받이를 설치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침수 예방의 적지만 큰 실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우리 모두 동참해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